

Hyundae Bulkyo 8th



창간 8주년 특별기획II

불교상담 연구 어디까지 왔나

국내 학계에서 불교 사상을 상담심리학적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는 주로 정신치료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출발했다. 1968년 이동식 교수(전 연세대·이화여대 교수, 정신과)가 쓴 '한국에서의 상담과 정신치료의 철학적 기초 서설' (윤태림박사회갑기념논문집)은 불교의 명상과 상담 심리학을 접목시킨 최초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고려대 김기석 교수가 선(禪)을 상담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글들을 쓰기 시작했고, 1970년대 들어서는 가톨릭대 윤호균 교수와 경북대 의대 정창용 교수가 가세했다.

특히 이동식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정신치료의 철학적 기초로 선을 비롯한 <능엄경> <대승기신론> 등의 사상에 담겨 있다

는 주장을 펴 이 분야 연구의 토대를 닦았다. 또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 (일지사, 1974)과 <노이로제의 이해와 치료> (일지사, 1974) 등의 책을 통해서도 선불교의 '교

외별전'이나 '견성성불' '법립문자' '지치인심' 사상이 현대 정신분석이나 정신치료와 직결된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불교상담과 관련한 논문들이 본격적으로

로 쏟아져 나온 것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다. '팔정도 수행법과 심리치료' (박영동, 1989)를 비롯해 '연기법의 중도 사상에 기초한 상담 모형의 탐색' (조혜진,

2000), '상담심리의 불교적 접근—오은설과 사상제를 중심으로' (조경자, 2001) 등 10여 편의 석사 학위 논문을 불교상담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 논문은 불교 사상 중에서도 초기불교와 유식사상, 선 등 3분야에 집중돼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초기불교에서 상담심리학적 요소를 뽑아내려는 노력이 많은데 가톨릭대 심리학과 윤호균 교수가 대표적이다. 선은 주로 치료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권경희씨의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불경에 나타난 석가의 상담 사례 연구—잡아할경을 중심으로'처럼 초기 불교 경전에서 상담심리학적 요소를 추출해 내는 시도가 돋보인다.

그러나 응용불교학으로서의 불교상담학은 '이제 곁을마를 걷기 시작한 수준'이라는 게 관련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선(禪)상담연구원을 개원한 인경 스님(보조사상연구원 연구실장은 '서구 상담심리학에 기반을 둔 학자들이 불교를 상담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70년대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불교상담과 명상치료, 명상심리치리라는 용어가 함께 쓰일 정도로 학문적 정립은 아직 안 된 분야'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yll@buddhania.com

정신치료로 출발 정립단계 진입

불교명상법을 상담심리학에 접목

이론 바탕 '초기불교·유식·선'에서

학문으로서 '불교상담학' 미정립

"불교 상담프로그램 개발 시급"

禪상담연구원 개원한 인경스님



"불교상담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학문적 정립과 그것을

는 새로운 포교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한 목사의 얘기를 듣고 큰 자극을 받은 스님은 "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스님들을 보면서 불교계에서도 상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불교를 상담에 적용하면서도 절대 심리학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면 불교쪽 전공자들은 심리학에 관심이 없다. 둘 다 한계가 있다.

인경 스님은 "서구 심리학의 참고 자

명상·심리학 결합 이론 연구 주력

세간·출세간적 상담 서로 융합돼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선(禪)상담연구원을 개원한 인경 스님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불교적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경 스님이 상담을 처음 접한 것은 출가 전 서울교육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불교 상담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99년부터 2년간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이라는 모임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심리학적 방법에 기초해 사람의 내면을 바꿔나

로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 이론 기반을 갖는 불교상담학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불교상담에서의 심리학적 기초 확립, 불교의 명상과 심리학의 결합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인경 스님은 "서구 심리학은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과 진단에 유용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불교상담은 세간적 상담과 자기 문제를 포함한 출세간적 상담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내적공감 얻는 상담이 곧 '치료'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의 상담현장



은 의료봉사차 네팸을 방문하고 돌아온지 이틀밖에 안돼서인지 무척 수척해 보였지만 상담 의뢰인과 얘기할 때만큼은 시종일관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40여년동안 정신과 치료를 해온 이 원장은 불교적인 상담원리를 찾아내고 체계화시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훌륭한 포교가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원장은 "실제로 불교상담은 '문제를 가진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속으로 직접 들어가, 선이나 명상 등

팔정도수행법·명상법 마음치료 응용

가정·청소년·인생문제 경전내용 활용

"얼마 전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종교가 기독교여서 결혼까지 하는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인의 종교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서 아는 스님이 재신 조율한 사찰에 가서 조언을 부탁드리고, 새벽예불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작전(가을 한 번 세워 보세요).

지난달 30일 삼청동 '예미의 집, 가족아카데미' 정원에서 이근후 원장 66, 불교상담개발원장이 이성간의 종교문제로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는 김성숙(가명, 23세)의 상담하고 있었다. 이 원장

자신을 통찰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팔정도 수행을 심리치료 과정으로 응용한다거나 스트레스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명상법을 권하는 등 상담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설명한다.

역시 해결책은 '일체유심조'임을 깨닫게 된다는 이 원장은 "의뢰자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공감할 이루어내는 상담 자체가 곧 치료"라고 불교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주필 기자 jw@buddhania.com

"상담에 불교적용 전망 밝아"

가톨릭대 심리학과 윤호균교수



가톨릭대 심리학과 윤호균 교수는 초가불교의 연기 사상을 심리학적 관점에

"상담에 불교를 접목해 보는 시도는 확실히 의미 있고, 전망도 밝다"고 강조한다.

윤 교수는 "남들이 모두 자기만 쳐다보고 무시하는 것 같아 혼자 다니지를 못하는" 대인공포증에 시달리던 한 여대생의 사례를 들었다. "연기론을 원용하면, 무명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항상 같은 모습이며 그 현상을 좌우하는 확고한 실체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문제 역시 자기 마음에서 나온 '공상'이라는

'자기집착'이 고통 핵심 통찰 필요

이론·현장적용 상호 검증있어야 발전

서 재해석하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는 대표적 상담심리학자다. '불교와 상담—연기론과 유식론을 중심으로' (강석현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98) 등 연기론과 상담에 대한 논문도 이미 여러 편 발표한 윤 교수는 97년부터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이를 적용해 오고 있다.

"상담 및 치료에서는 특히 자신과 세계가 고정불변하는 실체라는 생각과 자신이 남들과 다른 정체성을 지닌 별개의 존재라는 생각이 괴로움의 생성 과정에서 핵심을 이룬다는 불교의 설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윤 교수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공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윤 교수는 "이제 상담의 기법에 불교 이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정도지 '불교상담'이라고 부르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한다.

윤 교수는 "상담 및 정신치료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이론적 연구를 통해 검토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과정을 거치고서야 '불교상담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청담대종사 탄신 100주년

肉身은 有限하고 法身은 無限하다

한국 불교 근현대사에서 청담대종사의 수행은 치열했고 활동과 역할은 매우 넓고 컸다고 아니할 수 없다. 부처님 법대로만 살자는 기치 아래 1947년에 주도한 봉암사 결사가 그렇고, 1954년부터 열반에 이르도록 울곧게 이끌어온 불교정화운동이 그러하며 공부하는 불교, 참회가 있는 신앙운동을 선도하고, 육영사업과 아동 복지 사업을 통해 세상과 함께 하는 불교를 건설해 가는 노력 또한 탁월한 안목과 시련의 모습이었다. 스님은 종정의 직분으로 원로원장으로 총무원장의 직분으로 때로는 동국학원 이사장으로, 불교신문 사장으로 사위보다 공약을, 문중보다 교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

스님의 삶은 조계종의 출범과 성장, 그리고 발전의 궤적과 같이 하였다. 따라서 스님의 삶은 조계종 근현대사의 분리될 수 없는 생애였다.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청담문도회는 이 날의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종단과 협의하여 스님에 대한 추모의 정을 다한 가운데 때마침 종단이 추진하는 통합 종단 출범 40주년 기념사업에 부응하여 청담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회고하고 근현대 조계종사적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고 정리하는 좋은 기회로 삼도록 합의하고 함께 기념 행사를 갖도록 하였다.

청담대종사 생애와 사상연구 학술 세미나

- 학술 세미나 I : 2002년 10월 10일 13시 30분 프레스센터 (서울 태평로 소재)
- 학술 세미나 II : 2002년 10월 12일 10시 봉녕사 (수원시 팔달구 소재)

청담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법회 및 청담기념관 개관

- 2002년 10월 15일 삼각산 도선사

청담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축제 - 산사음악회

- 2002년 10월 20일 18:00 - 21:00 삼각산 도선사 야외 무대
출연진 : 이상벽, 해바라기, 최성수, 이은하, 김태곤, 전미경, 강진한, 박정희, 머루와 다래, 김향금 무용단, 세모시 민속악단 등 (일부 출연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청담대종사 열반 31주기 추모 법회 및 탄신 100주년 기념 36,500등 불사 회향법회

- 일 시 : 2002년 11월 15일 오전 11시
- 장 소 : 도선사 호국 참회원

문의 : 도선사 021993-3161~3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담문도회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청담문화재단, 불교신문사

후원 : 평남사, 불교방송국, 불교텔레비전, 법보신문, 현대불교, 주한불교, 대한불교, 중앙선도회, 학교법인 청담학원, 애명복지원, 보육원, 애명양로원, 청담복지관, 청담 도봉어린이집, 도선사 선도회